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31절

예수님께서 열두제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열두제자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똑똑하고 학벌도 있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 삼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후사로 삼았다면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후사를 부탁하신 열두제자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박학박식한 학자나 신학자도 없었고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 다. 뿐만 아니라 성격들도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덤벙거리고 성격만 불 같았지 뒷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두제자는 정치성향까지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 다. 한 사람은 열심당으로 로마제국의 통치를 뒤엎으려고 결심한 혁명가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로 유대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매국노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가 어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 다. 예수님과 3 년간의 제자훈련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들은 사도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 2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명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너무나도 평범했던 이들, 우리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들이 그 평범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범한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교훈을 배워 우리들도 평범에서 비범으로 변화되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소명은 평범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 받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역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기를 잡은 후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존 맥아더 목사는 누구나 선택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사역의 소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소명(Calling)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 등에만 해당되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가 평신도의 소명에 대해 평가절하한 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명은 절대로 목회자나 선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번째 사역 비전이 평신도가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나 평신도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각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가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교회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소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어떤 일에 내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째 주님으로부터 새이름을 받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새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새이름을 받는 다는 것을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래를 사라로 바꾸어서 서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아들이 없는 데로 열국의 아비로 먼저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부터 긍정적으로 바꾸시게 한 것입니다. 말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뱀의 말은 반드시 말대로 이루고 돌아옵니다. (사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속담 말은 씨가 된다 사건을 만들어 낸다.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아이고 죽겠다, 못살겠다”가 아닌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확신의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신앙 생활의 반 이상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전부 기록해 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범죄의 핵심은 말로 범한 죄입니다.

기도는 평범에서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새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린 끈질긴 기도로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주셔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기도로 승리한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진정한 열국의 아버가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 가장 고귀한 태도와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양대 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도를 버리면 50% 실패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존 칼빈-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두 세번만 반복해서 안 된다 필요할 때 마다 백번 천번이고 자꾸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야곱은 결국 기도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 32: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약탈꾼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국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 전체 혹은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세번째가 성령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평범한 제자들이 성령충만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승천하시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 년동안 먹고 마시고 설교를 듣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먼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로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힘있게 전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인데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이 갈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갑니다. **2) 위치의 변화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3) 본질적 변화입니다.** 본질 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 법적지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뜻입니까?**

**1)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2) 예수 충만함을 말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는 삶입니다. **3) 성령충만함이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충만할 때입니다. 스테반은 돌아 맞아 죽어도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충만하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 넘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죽음을 뛰어 넘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열두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순교했습니다. 늙을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 뿐이었습니다. 한날 평범한 인생으로 이름도 없이 끝날 인생이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비범한 사람으로 칭송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하면 아주 평범했던 제자들이 놀라운 사람이 된 것 같이 어떤 평범한 사람도 모두가 비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목자들을 위해서도 성령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2. 만약 사명이 특별한 것이 없다면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는 것,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 직장에서도 본이 되게 열심을 다하는 것도 사명인 것을 아십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나누기 바랍니다.
3. 당신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4. 당신은 성령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